

로마서 묵상 40
(3/11/2021, 목)

찬양: 292(415)(주 없이 살 수 없네)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8:35-39

말씀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 승리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된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으며,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했고, 아울러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한 바울은,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증거한다. 35 절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구절에서 언급된 힘든 상황들은 바울 자신이 직접 겪은 것들이다. 바울은 자신이 환난 중에 몸으로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내어 놓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의 최후의 승리의 기초가 되는 것은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이다. 사도요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다고 기록했다. 요 3:16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사랑하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셨다.

바울은 “누가 . . . 끊으리요” 라는 표현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피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주님과 끊을 수 없는 영적인 관계 속에 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갈망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을 깊이 되새기며 묵상해야 한다.

바울은 35 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끔 하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운 상황들의 구체적인 예를 언급한다. “환난”으로 번역된 원어 ‘들립시스’는 ‘외적 환경과 외부적 원인으로부터 가해오는 압력과 고난’을 의미한다. “곤고”로 번역된 원어 ‘스테노코리아’는 문자적으로는 장소가 좁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 마음에 깊은 근심, 답답함, 염려를 가짐을 의미한다. “박해”는 ‘뒤 오그모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로서, 종교와 사상의 문제로 공격과 해를 입는 것을 나타낸다. “기근”의 원어는 ‘리모스’로서, 먹지 못함으로 굶주리는 고통을 의미한다. “적신”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킴노테스’는 문자적으로 ‘벌거벗음’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매우 가난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종류의 소외됨의 고통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칼’로 번역된 단어는 ‘마카이아’로서, 이것은 칼로 사람을 죽이고 목을 베는 등의 가혹한 핍박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바울은 성경을 인용하여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도살 당할 양”같다고 표현했다. 36 절 -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인용한 성경은 시 44:22 이다. “도살 당할 양”은 말 그대로 죽음 직전의 양이다. 신앙 때문에 갖가지 공격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육신적 상황은 죽임을 당하기 직전의 양과 같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실 바울이 본문에서 언급한 어려움들은 자신이 실제로 다 경험한 것들이다. 고후 6:4-5 -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고후 11:23-27 - 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혹독한 고난을 견딘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37 절에 기록되어 있다. 37 절 -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엄청난 핍박 속에 “도살 당할 양”과 같은 심정을 가졌던 바울은, 함께 주를 섬기며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당하는 극도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한다. 이 메시지 속에는 그러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이다. 이 표현은 35 절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는 말씀과 연결된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언한다.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다’ 혹은 ‘승리 이상의 승리를 하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환난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

바울은 38-39 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38-39 절 -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은 신앙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순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의미로서, 세속의 삶을 살아갈 때 당할 수 있는 유혹, 역경, 어려움 등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 세상의 삶이 성도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어떤 학자들은, 당시 박해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 준다고 했기 때문에, 생명을 조건으로 배교를 종용했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생명 역시 성도들에게는 유혹과 위협의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천사들”이 선한 천사들인지 타락한 천사들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 성도들에게 위협이 되는 영적 존재들을 나타내기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권세자들”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바울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존재들이라 하더라도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현재 일과 장래 일”은 지금의 일과 미래의 일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염려를 의미한다. “능력”은 천재지변 같은 어떤 자연의 힘을 뜻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영적인 존재들의 힘으로 본다. “높음”과 “깊음” 모두 천문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 바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영역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한다.

핵심은 주님의 강력한 사랑에서 나오는 도움과 보호와 붙잡으심이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과 결코 끊어질 수 없으며, 모든 것을 감당하고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의 눈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식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을 자극하여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느끼며 확신을 가짐으로 승리하게 한다.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중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영육 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2.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미안마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정요엘, 채희철 선교사님 가정을 비롯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오늘도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총의 역사를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